

전남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 힘쓴다

도, 농업근로자 숙소 확충·언어도우미 지원 추진 국가 차원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 개선 건의

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숙소 확충 등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는 지난 1월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 모집 및 교육 송출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출입국 관리사무소 연계 입출국 관리, 인권 침해 점검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인력 도입 방식 고용허가제(E-9) 시스템처럼 운영 등이다.

전남도는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숙소 확충, 의료비 지원, 통역도우미 지원 등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는 해남·담양·영암·무안 등 4개소에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또 폐교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업(10개소)에 도비로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농업 환경에 적응하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어울리도록 언어소통 도우미도 시·군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농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성실 근로를 유도하고 농작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해 시행한다. 올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성실하게 일해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받으면 2025년부터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주 교육도 강화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3월까지 인권, 노동법 등 교육을 하고, 미참여 고용주는 계절근로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고용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하루 단위로 농가를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없는 인접 시·군도 지원이 가능토록 관계자 연락망을 구축

·운영한다.

전남도가 지난 1월 시·군을 통해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는 농업 분야 총 2천3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되기 전 중개업자에게 항공료 등을 자동이체 하도록 계약하고 입국해 계절근로자의 통장에서 중개업자에게 일정 금액이 자동이체 되도록 한 사례 59건을 밝혀냈다. 이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건과 유사한 경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통장을 재발급 조치하고 임금 미지급 6건에 대해 즉시 임금토록 조치했다.

현직 작업반장 등 제3자가 통장 등을 보관하는 경우도 2건이 있었으나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재발급토록 조치했다.

전남도는 수시로 시·군과 함께 지도 점검에 나서 농가 애로사항을 살피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강하춘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원활하게 노동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가족처럼 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하도록 근로여건 개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에서 살아보기’ 운영 스타트

전남도는 6일 “올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전남 완도 신지면 울모래마을에서 열린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촌문화 이해와 마을 주민과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돕는다. 사업 첫 해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497명이 참여해 426명이 전남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귀농 귀촌인 유입에 성과를 내고 있다.

완도 신지면 울모래마을은 지난달 말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울산, 충북 등에서 거주 중인 5명이 선정돼 입소했다. 개소식에는 올해 참가자를 비롯해 과거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완도에 정착한 귀농·귀촌인 3명도 함께 했다.

전남도는 올해 19개 시·군, 28개 마을에서 3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들 마을은 지역 특색을 담은 영농 체험, 기술 전수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 참가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를 바라는 도시민은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를 통해 마을별 운영 기간을 확인하고 지역 여건, 마을별 숙박시설, 운영 프로그램 등을 살펴 원하는 마을을 신청하면 된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에 찾아온 참가자가 전남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개막 6일 오전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2024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현장의 눈빛'을 주제로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도, 마을공동체 518개소 활동 지원

마을·돌봄 공동체 각 318곳·200곳 선정...최대 2천만원

전남도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기틀을 다지기 위해 올해 마을공동체 518개소의 활동 사업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6일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를 열어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공기빛깔(씨앗·새싹·열매) 318개소,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20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규모는 총 309억원이다.

올해 마을공동체 활동 사업 지원 규모는 지난해(477개소)보다 41개소 늘

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이 지난해 377개에서 올해 318개로 59개 줄었고, 민선 8기 공약인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은 100개에서 200개로 증가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다양화와 브랜드 사업 개발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토록 함으로써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3개 유형으로

씨앗·새싹·열매 단계로 나뉜다. 마을 자원 조사, 마을 계획 수립, 마을 테마 사업에 20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단체) 등이 마을의 아이부터 어른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세대에 반찬 배달, 식사 제공, 긴급돌봄, 간단한 집수리 등을 통해 안부를 묻고 건강을 돌보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행복드림 돌봄을 위한 사업비 및 컨설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장기 생활체육대회 25개 종목 선정

플라잉디스크·주짓수·등산·합기도 등 4개 추가

광주시는 6일 “2024년 광주시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지원사업”에 참여할 종목단체 25곳을 선정해 4월부터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플라잉디스크, 주짓수, 등산, 합기도 등 4개 종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사업은 시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의 생활체육대회를 지원, 시민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친목 도모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억원이며 ▲최

다 5년간 개최 실적 ▲대회 전담 인력 ▲자부담 비율 등 반영한 정량 평가와 ▲사업 기획 ▲안전 관리 ▲홍보 ▲대회 운영 역량 등 정성 평가를 거쳐 2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심사 기준을 개선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제안한 단체에 특전을 부여하는 등 가맹단체별 차별성 있는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일반대회와 여성대회를 통합하고 참가 부문을 확대하는 등 시장기 대회 위상을 강화한다.

전남개발공사, 사옥 입주업체 임대료 동결

고물가 등 고려 8년 연속 결정

전남개발공사는 6일 “사옥(사진) 내에 입주한 20개 업체의 임대료를 8년 연속 동결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업체의 안정과 금리 부담을 고려, 지난해와 같이 임대료를 동결했다.

전남개발공사의 8년 연속 임대료 동결 조치는 최근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추진 기조를 반영해 결정됐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임대료 동결을 통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남도의 유일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과 행복! 우리 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굿모닝서울안과
GOOD MORNING SEOUL EYE CENTER

도안/백내장
라식/라섹
안검하수/쌍꺼풀
눈물길수술

2층 수술센터 / 3층 외래진료센터
- 안구건조증 클리닉 운영

광주 서구 무진대로 965
태영내과21빌딩·메디칼센터 2, 3층
☎ 062.430.2020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에덴병원

진료내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전화 : 062-260-3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 (두암동)

공공의료·복지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보훈공단
광주보훈병원**

병원장 이삼용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대표전화 062.602-6114
응급실 062.602-6119

www.ct119.co.kr

믿음을 주는 참 좋은 병원

광주시티병원
시티재활의학과요양병원

광주시티병원 062.460-7000
응급실 062.460-7119